

#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 다문화 한부모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권미경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4월 24일 다문화 한부모가정 어머니들과 『제3차 KAL(KICCE Active Listening: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는 일본,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출신의 '글로벌한부모회'(자조모임) 대표 외 한부모가정의 어머니 6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관련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어머니들은 다문화 한부모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지원정책 활용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육아정책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한 육아정보 책자 발간,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이돌보미 사업,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 일자리 및 안정된 주거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제안되었다. 아래 본문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다문화 한부모가정 육아환경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지원 현장에서 이혼·별거 혹은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 여성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별거 혹은 사별 상태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부담이 심합니다. 특히 귀화나 영주권 취득 이전이면, 외국인 신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기 쉽습니다.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혼, 사별 이후 다문화가정이 직면하는 현황을 반영한 정책은 부족하여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소장:**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보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정의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부 제2조)에서 명시하듯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출생한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연구자 2:**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를 보면 다문화 결혼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여서,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08년 11.2%에서 2016년도에 현재 7.7%로 줄었습니다. 결혼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도 최근 9년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결혼 건수 대비 이혼 수는 다문화가정에서 더 높았고,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이 한국인 간 이혼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구자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다문화 한부모가구는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생활여건, 자녀양육, 한국생활 적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사별일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건강상태, 정신건강 등이 좋지 못하며,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는 한부모 가구에서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조모임대표:** 다문화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큼니다. 다문화 한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이혼과정의 불평등,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등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는 불평등한 이혼 상황이 되기 쉽고, 사별 후 재산 분배의 과정이 어머니들에게 불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정부의 기초생활비에 의존하여 생활합니다.

**어머니 1:** 혼자 키우면서 아플 때 자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이를 돌보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생겨도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면 수급자에서는 제외되고 자녀만 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이 되니까 어렵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어머니가 외국 국적이시면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청할 자격이 안됩니다. 그냥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서 엄마가 보호자시니까 한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지 본인 자체는 지원이 안됩니다.

**어머니 2:**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어렵습니다. 국적 취득을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통과 벽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어 교육, 귀화준비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서류 준비나 은행 잔고 확보 등도 어렵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준비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조모임대표:**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일단은 통합사회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 통합사회프로그램은 5단계까지 시험을 쳐서 통과하는데, 한 단계 공부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시험에 만약 탈락하면 다시 공부하고 합격 될 때까지 시험을 쳐야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가 혼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 단계공부를 5단계까지 통과하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느냐를 본다면서 저축이 3천만원이 있나,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됐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어머니 3:**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집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한부모든 양부모든 다 상관없이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거잖습니까?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여도 외국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어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로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 4:**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10살, 11살인데, 제가 식당가서 늦게까지 일하면 돈을 많이 벌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돈에 너무 얽매이면 애들을 망치니까, 그냥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애들을 챙기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9시 넘어 출근하는 시간제 일자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급도 100만원이 안됩니다.

**어머니 5:** 아이들 버릇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드니까 말을 너무 안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이 힘듭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말 안 듣고, 좀 더 크면서 좀 더 심각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아빠가 엄마에게 욕하는 걸 많이 보고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들이 심한 말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 2:**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도 한부모의 상황은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어머니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 6:** 지원해준다는 다양한 육아정책은 있지만, 언어도 잘 안되고, 아는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움이 되는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교사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가 돌봐주기 어려운 부분인 학교 공부를 지원해주어 좋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 공부도 봐주고 저녁 식사까지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자 1:** 연구과정에서도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정책 활용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지원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 중에는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대안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한

다든지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의 유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한부모들의 자조모임과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자녀가 있는 한국인 어머니와의 멘토-멘티 형성 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요?

**연구자 2:**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근거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과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이 소송 등에 휘말려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비 지원을 받아 입주할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1:**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측면을 공공부조는 물론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있어서,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나 자녀장려금, 고교학비나 학교급식비 지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해 취약위기 가족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가 지원되고 있고, 자산형성을 위해 목돈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다문화 한부모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연구자 2:** 다문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사례관리사와 다문화생활지도사 그리고 결혼이민자 멘토링까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문화와 한부모라는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 간에 연계가 필요합니다.

##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소장:** 다문화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지원을 위해서는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국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은 분명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배경을 지니고,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된 이중적인 어려움의 가족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유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

**연구자 2:**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머니의 역량 강화에 초점 두어야 합니다.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이 다양한

지원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여러 부처를 통해 상당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언어의 장벽이나 심리·사회적인 위축 등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길라잡이’라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같은 책자를 다국어로 발간해서 다문화 한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다문화 가족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 한국어와 다국어로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다누리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조모임대표:** 어느 정도 자립의 경험을 쌓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 한부모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로 양성하여 취약한 다문화 한부모와 1:1로 연계해서 지원한다면 이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정책적 정보 제공에서 멈추지 않고 다문화 한부모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맺은 다문화 한부모들 간에 자조모임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한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 1:**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지원 중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현재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들이 전달과 활용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원 전달체계 간 업무 및 역할분담, 다양한 지원의 정비와 더불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실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이나 정책 수혜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한부모

가 없도록 이를 발굴하여 지원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련정책들이 개선되어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성장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길 기대합니다.